

전통주택 실내구성요소의 현대적 계승사례에 관한 연구 -월간잡지에 나타난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Traditional Interior Elements in Modern House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석사 成美賢
부교수 吳惠京

Dept. of Housing, Family & Child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Master: Sung Mi Hyun

Associate Prof.: Oh Hye K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현대적 계승사례 조사의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현대적 계승사례의 조사결과 및 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of the modern adaptation of interior elements(wall, floor, ceiling, door & window) in traditional house. The examined objects were 316 pictures of residential interior spaces from the 5 different monthly magazines between Jan. 1993 to Dec. 1997.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ostly, they were either partial adaptation from the original or partially transformed adaptation, rather than entire adaptation of the original.
2. Of the traditional interior elements adapted in residential space, only specific elements were being adapted. For example, partial adaptation from the original were oiled paper flooring(Jangpan), rice papered wall(Hanji), a ceiling finish that left the rafters and beams exposed(Yondung-chonjang), and window or door frame which is vertical lattices accented with horizontal lattices grouped into three sections(Ttisal-mun). And partially transformed adaptation were wood

flooring(Chang-maru), rice papered wall(Hanji), Yondung-chonjang, window or door frame of Wan character(Wanja-mun).

3. In regard to space, the mostly adapted spaces were bedrooms rather than living or dining room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한국의 건축은 한국인의 정서와 풍토에 맞는 토속 건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즉 강우량이 많고 더우며 습한 여름, 춥고 건조한 겨울 등 사계가 뚜렷하며 산이 대부분인 지형 속에 생존할 수 있게 지어져 왔다.

그러나 개화기와 해방 이후부터 해외의 사조들을 적극 끌어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모방한 행위가 국적도 없고 문화적 출처도 불분명한 건물들, 또는 본질을 외면한 채 외국 사조의 껍데기만을 모방한 잘못된 결과물들을 낳았다. 따라서 우리의 주변 환경은 과거 기억의 연속성이 희박한 도시, 현재뿐인 세계 속에서 무미건조한 광택의 도시, 문화빈곤의 도시, 경제 선진국을 모델로 모방한 투명하고 무기질적인 도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건축이 대두되면서 풍토주의,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의 문화를 올바른 궤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반 현상들은 한국인에게 보다 적합한 한국적인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연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올바른 해법을 한국의 전통공간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전통공간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 경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전통공간에 내재된 사상 즉 유교사상이나 음양오행설, 풍수, 도참사상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손두호, 1980; 김덕수, 1993; 박영목, 1995), 둘째, 전통공간의 공간성 예를들면 공간의 배치나 위

계성, 연속성 등에 대한 연구(주남철, 1974), 셋째, 전통공간의 의장요소를 다룬 연구(천병옥, 1957; 이도희, 1980; 염근호, 1990), 넷째, 서양의 건축원리로 전통 공간을 해석하려는 연구(김영희, 1989; 임석재, 1987; 이미애, 1996), 다섯째, 전통공간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송은하, 1995; 김경숙, 1996), 여섯째, 전통공간의 계승 및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정진수, 1975; 오인식, 1977; 이영준, 1989; 임봉식, 1992) 등이 있다.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전통건축 자체의 특성을 연구하는 경향이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전통건축의 계승 및 현대적 적용을 연구하는 경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연구의 분야는 전통의 계승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의 전통주택의 건축적인 면에서 연구되었고 실내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미약하였다. 더욱이 현재 우리의 주변에는 전통공간을 계승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전통을 계승한 공간은 건축의 외관이나 건축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실내공간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토털 디자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실내디자인계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택 실내공간 중 특히 실내구성요소들이 현대의 실내공간에 계승되고 있는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이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전통을 계승한 실내공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주택계승의 다양한 방법들

을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통주택의 특성이 현대에 계승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공간을 계승한 공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최근의 월간 잡지를 통하여 전통주택 실내구성요소의 계승 내용을 분석한다.
 - ① 원형 도입 방법에 의한 계승 사례수와 그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 ② 변형 도입 방법에 의한 계승 사례수와 그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 2)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가 계승된 공간의 전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전통주택을 계승한 공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II. 현대적 계승사례 조사의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공간의 선정

본 연구는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를 계승한 대상으로서 주택과 호텔객실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호텔객실을 주거공간으로 선정할 이유는 호텔객실이 주거공간의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월간잡지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전통주택을 계승한 공간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잡지를 이용하면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의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한 월간 잡지는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정보, 주택저널, 호텔에 관한 잡지로는 호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다양한 실내의 정보지이며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주로 구독하는 월간 인테리어, 조명과 인테리어, 주부들이 주로 구독하는 리빙센스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를 계승한 공간이 조사되도록 하였다.

실내공간의 유행이 자주 바뀌는 이유와 더불어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3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잡지에 실린 공간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실의 수는 316실(하나의 실이 여러 잡지에 기재되어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함)이었다.

2. 조사방법

1) 조사대상의 분류방법

지금까지 시도된 전통계승 방법들은 주로 건축계에서 이뤄진 분류방법으로 크게 건축형태의 계승에 의한 방법과 건축물에 담긴 내면의 계승에 의한 방법이다(김홍식, 1975). 먼저 형태에 의한 계승의 방법은 전통건축의 원형을 모방하여 재현한 방법과 전통건축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방법, 전통건축의 원형을 전체적으로 변형시킨 방법과 전통건축의 원형을 부분적으로 변형시킨 방법, 전통건축을 추상화한 방법으로 나누었고(정덕훈(1986), 김기웅(1984)) 내용의 계승에 의한 방법은 건축 사상적 측면이나 공간구성의 원리, 공간배치에 의한 방법을 뜻하고 있다(김홍식, 197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실내공간에 이러한 분류방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적합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분류대상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구조체, 건물배치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실내공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분류방법을 기본으로 형태적 계승이 전체 원형 도입 방법과 부분 원형 도입 방법, 전체 변형 도입 방법, 부분 변형 도입 방법, 추상화 방법으로 나누었고 그 중 추상화 방법과 전체 변형 도입 방법은 사례수가 거의 없어서 생략하였다. 그리고 내용을 계승한 방법의 사례도 있었지만 실내공간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생략하였다.

2) 각 요소의 판별기준

각 요소의 판별기준은 원형을 판별하는 기준과 변형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나누었다.

(1) 원형 판별기준

원형여부의 판별기준은 먼저 창덕궁 내 연경당의 각 실내구성요소를 원형으로 보면서 판단하였고 또한 한국주택건축(주남철, 1996)이나 한국건축의장(주

남철, 1997), 우리 옛집 이야기(박영순외 공저, 1993),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1983)에 수록된 사진을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별기준에 따라 전체 원형 도입 방법과 부분 원형 도입 방법으로 판별할 수 있었다.

① 전체 원형 도입 방법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 즉 바닥, 벽, 천장, 창호 모두가 전통적인 원래의 형태로 계승되어 있을 때 그 요소는 전체 원형 도입 방법으로 계승되었다고 보았다. 단 그 구성요소가 전통공간에 사용되었던 원칙으로 계승되지 않아도 전체 원형 도입 방법으로 보았다. 예를들면 대청에 사용되었던 연등천장은 현대 공간에서 대청이 아닌 방이나 부엌에 사용되어도 그 형태가 조선시대 당시 사용되었던 원형의 모습이면 전체 원형 도입 방법으로 보았다.

② 부분 원형 도입 방법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가 현대공간에 계승될 때 바닥, 벽, 천장, 창호 중의 일부만이 원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 그 요소는 부분 원형 도입 방법으로 계

승되었다고 보았다.

(2) 변형판별기준

변형여부의 판별기준은 각 잡지에 나오는 대표적 사진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한 후 일정한 판별기준을 세웠는데 각 요소별 변형 판별 기준의 예는 <표 1>과 같다. 이러한 변형 판별기준에 따라서 부분 변형 도입 방법과 전체 변형 도입 방법으로 판별할 수 있었다.

① 전체 변형 도입 방법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가 현대공간에 계승될 때 바닥, 벽, 천장, 창호의 전체가 원형의 형태에서 변형되어 있으면, 그 요소는 전체 변형 도입 방법으로 계승되었다고 보았다.

② 부분 변형 도입 방법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가 현대공간에 계승될 때 바닥, 벽, 천장, 창호의 일부가 원형의 형태에서 변형되어 있으면, 그 요소는 부분 변형 도입 방법으로 계승되었다고 보았다.

<표 1> 전통주택 실내구성요소의 변형 판별기준의 예

바닥	우물마루	우물마루의 형태가 변형되었을 때
	장마루	장마루에 사용되는 목재가 외국산일 경우, 장마루 재료가 비닐일 때
	장판지마감	장판지 무늬로 된 비닐계 재료일 때
	흙바닥	흙바닥에 안료를 넣었을 때
벽	종이벽	종이벽이 한지를 이용한 것처럼 꾸몄는데 현대화된 무늬나 장식이 있거나 일반 벽지에 한국적인 문양이 있을 때
	회벽	회벽에 안료를 넣거나 기타 무늬를 넣었을 때
	흙벽	흙벽에 안료를 넣거나 기타 무늬를 넣었을 때
천장	우물천장	우물천장의 귀틀형태가 현대화되어 있거나 귀틀안의 면이 전통적으로 장식되지 않을 때
	연등천장	보나 서까래의 형태가 현대화되거나 평천장에 보나 서까래가 있을 때
	평반자	평천장이 경사져서 연등천장처럼 설치되어 있을 때
	종이반자	종이반자가 한지를 이용한 것처럼 꾸몄는데 현대화된 무늬나 장식이 있거나 일반 천장지에 한국적인 문양이 있을 때
	장반자	장반자가 경사천장에 설치되어 있을 때
창호	창살이 원형이 아니거나 유리에 창살이 있을 때	

3) 공간별 각 실의 구분

본 연구는 조사대상 공간에서 각 실별로 계승된 결과에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공동공간, 개인공간, 작업공간, 위생공간, 연결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여기서 공동공간은 거실과 식사실, 응접실을 포함하고 개인공간은 주침실, 자녀실, 노인실 등을 포함한다. 작업공간에는 부엌, 세탁실, 다용도실을 포함하고 위생공간은 욕실, 연결공간에는 현관, 복도, 계단을 포함하였다(박영순, 오혜경, 1995). 그러나 예비조사결과 생리공간의 사례수는 극히 적어서 생략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할 변수가 다양하지 않았고 사진한 장, 한 장을 세밀히 분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순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전통주택을 계승한 공간을 조사함에 있어서 공간 개념이나 디자인과정, 그리고 사진에 대한 설명 등

을 최대한 찾아 그 원류에 가깝게 판별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그 공간에 찾아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잡지에 실린 사진을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사진으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실내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3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별하였다.

IV. 현대적 계승사례의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공간의 일반적 특성

전통주택 실내구성요소의 계승공간으로 조사된 공간은 총 316실으로, 공간별로 보면 개인공간이 168실, 공동공간이 120실, 작업공간이 18실, 연결공간이 10실로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개인공간에서 가장 많이 계승되고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93년에 83, 94년도에 39, 95년도에 33, 96년도에 67, 97년도에 94가 조사되었는데 단순히 잡지에 실린 수 만으로 보면 그 경향은 94,95년 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었고 97년도에 가장

〈표 2〉 조사대상의 잡지별 기재된 실의 수

년도	잡 지
93	인테리어5, 조명과 인테리어5, 주택저널21, 주택정보34, 리빙센스13, 호텔&레스토랑5
	총83(26.3%)
94	인테리어6, 조명과 인테리어8, 주택저널17, 주택정보2, 호텔&레스토랑3, 리빙센스3
	총39(12.3%)
95	조명과 인테리어7, 리빙센스4, 주택저널20, 주택정보2
	총33(10.4%)
96	인테리어3, 조명과 인테리어6, 리빙센스15, 주택저널35, 주택정보4, 호텔&레스토랑4
	총67(21.2%)
97	인테리어8, 조명과 인테리어5, 리빙센스15, 주택저널47, 주택정보18, 호텔&레스토랑1
	총94(29.8%)
합계(%)	316(100)

많았다(표 2).

2. 실내구성요소의 계승 내용

1) 원형 도입 방법

(1) 전체 원형 도입 방법

전체 원형 도입 방법으로 구성된 공간은 14실(4%)로 그 수가 매우 적었으며 그 중에서 개인공간이 9실, 공동공간이 5실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닥에 장판지, 장마루, 우물마루가 있었고 흙바닥은 없었으며, 장판지로 마감된 바닥수가 가장 많았다. 벽에는 전통한지, 흙벽, 회벽의 사례가 모두 있었고 그 중 종이벽이 가장 많았다. 천장은 종이반자, 연등천장이 있었고 우물천장이나 평반자, 샷갓천장, 장반자는 없었으며 연등 천장이 가장 많았다. 창호는 띠살창호, 완자창호, 용자창호, 빗살창호, 불발기문이 조사되었으며 아자창호나 정자창호, 귀갑창호, 분합문, 판장문, 원문 등은 없었고 띠살 창호의 사례수가 가장 많았다(사진1). 따라서

〈표 3〉 전체 원형 도입 방법에서 연도별로 본 각 요소들의 공간별 사례수

요소	종류	공간별	93	94	95	96	97	계(%)
바닥	우물마루	개인공간				1		2(3.57)
		공동공간					1	
	장마루	공동공간				1	1	2(3.57)
		장판지	개인공간		1			7
공동공간				1	1			
벽	종이벽	개인공간		1		1	6	10(17.86)
		공동공간				1	1	
	회벽	공동공간					1	1(1.78)
		흙벽	개인공간					1
공동공간				1	1			
천장	연등천장	개인공간					3	8(14.29)
		공동공간				2	3	
	종이반자	개인공간		1		1	4	6(10.7)
창호	띠살창호	개인공간		1			5	8(14.29)
		공동공간					2	
	완자창호	개인공간					1	2(3.57)
		공동공간					1	
	용자창호	개인공간					1	1(1.8)
	빗살창호	공동공간				2		2(3.57)
불발기문	개인공간				1		1(1.78)	
총계(%)				4(7)		12(21)	40(71)	56(100)

전체 원형 도입 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전통 요소들은 벽에 전통한지를 바르고 바닥에는 장판지, 천장은 연등천장, 띠살창호의 사례들이었고 개인공간에서 많이 계승되고 있었으며 93,95년도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고 97년의 사례가 급격히 많았다.



사진1. 전체 원형 도입 방법으로 계승된 거실
(양평 아강희씨 한옥, 주택저널, 1997년 5월호, p. 118)

(2) 부분 원형 도입 방법

부분 원형 도입 방법으로 구성된 공간은 그 수가

가장 많았다. 그 중 바닥의 원형계승이 가장 많았고 (43%) 그 다음은 벽과 천장의 계승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① 바닥이 원형으로 계승된 사례

전통주택의 바닥인 장판지, 우물마루, 장마루, 흙바닥은 현대의 주택실내에 모두 계승되고 있었다. <표 4>를 보면 우물마루는 5사례(3%)로 공동공간에서, 장마루는 60사례(38%)로 이 역시 공동공간에서, 장판지는 87사례(56%)로 개인공간에서, 흙바닥은 4사례(3%)로 개인공간에서만 계승되고 있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93년도에 가장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였고 96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었다.

여기서 전통주택의 광이나 다락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장마루는 오늘날에 와서 일반 마루구조가 되어 우물마루보다 넓게 사용되어진다(홍진경, 1986)고 연구되어 왔었다. 그런데 본 조사의 결과 또한 장마루가 주거공간에 도입된 사례수(60사례)가 우물마루(5사례)보다 많았으며 주로 공동공간에서 도입된 사례수(36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에는 장판지 마감이가장 많이 도입되고 있었고, 주로 개인공간에서 많이 계승되고 있었다.

<표 4> 부분 원형 도입 방법에서 연도별로 본 바닥의 공간별 사례수

종류	공간별	93	94	95	96	97	계(%)
우물마루	개인공간				1		1
	공동공간		1			2	3
	연결공간					1	1
장마루	개인공간	6		1	3	5	13
	공동공간	12	3	4	6	11	36
	작업공간	4				1	5
	연결공간	1				3	4
장판지	개인공간	33	14	12	14	10	83
	공동공간	1			1	2	4
흙바닥	개인공간				2	2	4
총계(%)		57(36.5)	18(11.5)	17(10.9)	27(17.3)	37(23.8)	156(100)

② 벽이 원형으로 계승된 사례

전통주택의 벽인 종이벽, 회벽, 흙벽은 현대의 공간에서 모두 계승된 사례가 있었으며, 그 중 종이벽이 가장 많이 계승되고 있었다. <표 5>를 보면 종이벽은 49사례(63%)로 개인공간에서, 회벽은 16사례(20%)로 공동공간에서, 흙벽은 13사례(17%)로 공동공간에서 가장 많이 계승되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많이 계승되고 있는 벽은 종이벽이었고 개인공간에

서 가장 많이 계승되고 있었으며 연도별로 보았을 때 94년도부터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③ 천장이 원형으로 계승된 사례

전통주택의 천장인 연등천장, 평반자, 종이반자, 장반자는 모두 원형으로 계승되고 있었는데 연등천장(31사례)과 종이반자(31사례)의 사례수가 다른 요소들보다 많았다.

<표 6>을 보면 연등천장이 31사례(39%)로 공동공

<표 5> 부분 원형 도입 방법에서 연도별로 본 벽의 공간별 사례수

종류	공간별	93	94	95	96	97	계(%)
종이벽	개인공간	2	3	3	15	7	30
	공동공간	3		2	3	7	15
	작업공간				1	2	3
	연결공간	1					1
회벽	개인공간				1	3	4
	공동공간	1		1		6	8
	작업공간				1		1
	연결공간				1	2	3
흙벽	개인공간				2	2	4
	공동공간		1	1	3	3	8
	작업공간				1		1
총계(%)		7(9)	4(5.1)	7(9)	28(35.9)	32(41)	78(100)

<표 6> 부분 원형 도입 방법에서 연도별로 본 천장의 공간별 사례수

종류	공간별	93	94	95	96	97	계(%)
연등천장	개인공간		1		6	2	9
	공동공간			2	6	7	15
	작업공간			1	3	1	5
	연결공간					2	2
평반자	개인공간				1		1
	공동공간	2		1		1	4
종이반자	개인공간	2	1	2	7	7	19
	공동공간	2	1			5	8
	작업공간					2	2
	연결공간	1					1
장반자	개인공간	1				1	2
	공동공간	3	3	1	1	2	10
	작업공간				1		1
총계(%)		11(13.9)	6(7.6)	7(8.9)	25(31.6)	30(38)	79(100)

간에서, 평반자는 5사례(6%)로 역시 공동공간에서, 종이반자는 30사례(38%)로 개인공간에서, 장반자는 13사례(17%)로 공동공간에서 가장 사례수가 많았다. 여기서 전통주택의 대청에서 사용되었던 연등천장은 오늘날 공동공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개인공간, 작업공간 등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계승되고 있는 천장은 연등천장이었고, 공간별로는 공동공간이었으며 연도별로 보았을 때 94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④ 창호가 원형으로 계승된 사례

전통 주택의 창호가 계승되고 있는 종류는 띠살창호, 완자창호, 아자창호, 용자창호, 정자창호, 빗살창호, 불발기문, 귀갑창호, 분합문, 원문이었고 그 중 띠살 창호가 가장 많이 계승되고 있었다.

〈표 7〉을 보면, 띠살창호는 28사례(59%)로 개인공간에서, 완자창호는 4사례(8.5%)로 개인공간에서(사진2), 불발기문은 3사례(6%)로 공동공간에서, 정자창호는 4사례(8.5%)로 모두 개인공간에서만 조사되었다. 그 외의 창호들은 그 수가 적었는데 이러한 결과 창호는 몇몇 종류들이 지배적으로 계승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창호의 계승은 띠살창호가 가장 많았고 개인공간에서의 계승이 많았는데, 이것은 주로 방에서 창호의 계승이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연도별로 보면 매우 불규칙하여 어떤 경향을 읽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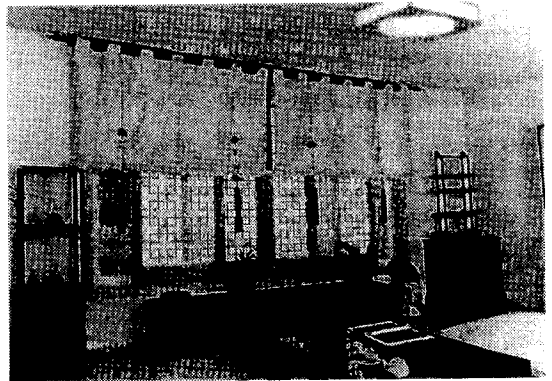


사진 2. 부분 원형 도입 방법으로 계승된 완자창호
(선경 서초 타워 시티빌, 조명과 인테리어,
95년 10월호, p.95)

〈표 7〉 부분 원형 도입 방법에서 연도별로 본 창호의 공간별 사례수

종류	공간별	93	94	95	96	97	계(%)
띠살창호	개인공간	2	5		5	6	18
	공동공간	1	2		4	1	8
	작업공간				1		1
	연결공간					1	1
완자창호	개인공간	2		1			3
	공동공간	1					1
아자창호	개인공간				1		1
	공동공간					1	1
정자창호	개인공간	3			1		4
용자창호	공동공간				1		1
빗살창호	공동공간				2		2
귀갑창호	개인공간		2				2
분합문	개인공간				1		1
불발기문	공동공간				1	1	2
	연결공간					1	1
원문	연결공간					1	1
총계(%)		9(18.75)	9(18.75)	1(2.1)	17(35.4)	12(25)	48(100)

2) 변형 도입 방법

(1) 전체 변형 도입 방법

조사결과 공간전체가 전통주택의 구성요소로부터 변형되어 나타난 예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2) 부분 변형 도입 방법

부분 변형의 도입으로 구성된 공간은 부분 원형의 도입보다 적었는데 천장의 변형이 가장 많았고(41%), 그 다음은 창호의 변형이 많았다(34%). 주로 많이 변형되는 요소로는 연등천장, 종이반자, 완자창호이며 그 중 완자창호의 변형이 가장 많았다(16.3%). 그러나 본 조사에서 흠바닥, 회벽, 흙벽, 샷갓천장, 판장문, 원문이 변형되어 계승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① 바닥이 변형으로 계승된 사례

전통주택의 바닥이 변형되어 계승된 사례는 총 33 사례이고 장마루가 25사례로 가장 많았다. <표 8>을 보면 우물마루, 장마루, 장판지가 계승되고 있었고

흠바닥은 없었다. 우물마루는 3사례(9%)로 1사례씩 나타났다. 우물마루의 변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짧았던 동귀틀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장마루는 25사례(76%)로 공동공간이 가장 많았는데 전통주택에서와는 달리 우물마루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변형의 예를 보면 장마루의 소재가 외산인 경우가 13사례였고 장마루의 무늬를 가진 리놀륨은 12사례였다. 장판지는 5사례(15%)로 개인공간의 사례수가 많았다. 장판지의 변형사례는 모두 전통적인 종이장판지가 아니고 민속장판 같은 리놀륨계 장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변형되어 계승되고 있는 바닥은 장마루로(76%) 공동공간에서 가장 많이 계승되고 있었으며 연도별로 보았을 때는 다른해보다 97년도에 급격히 계승의 사례가 많아졌다.

② 벽이 변형으로 계승된 사례

전통주택의 벽이 변형되어 나타난 경우는 30사례로 모두 종이벽의 변형이었고 회벽과 흙벽의 변형은 없었다.

<표 8> 부분 변형 도입 방법에서 연도별로 본 바닥의 공간별 사례수

종류	공간별	93	94	95	96	97	계(%)
우물마루	개인공간					1	1
	공동공간	1					1
	작업공간					1	1
장마루	개인공간	3	2			1	6
	공동공간	1			1	13	15
	작업공간					4	4
장판지	개인공간		1			3	4
	공동공간					1	1
총계(%)		5(15.2)	3(9.1)		1(3)	24(72.7)	33(100)

<표 9> 부분 변형 도입방법에서 연도별로 본 벽의 공간별 사례수

종류	공간별	93	94	95	96	97	계(%)
종이벽	개인공간	3	9	6	5	3	26(86.7)
	공동공간	1	1			2	4(13.3)
총계(%)		4(13.3)	10(33.3)	6(20)	5(16.7)	5(16.7)	30(100)

〈표 9〉를 보면 종이벽의 변형은 개인공간의 사례 수가 월등히 많았고, 연도별로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종이벽의 변형은 벽에 한지가 아닌 일반벽지가 한지처럼 발라져 있는 사례들이었다. 이들 변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사진상으로 한지와 구분되지 않으나 사진을 설명한 글에서 일반벽지임을 알 수 있는 사례와 둘째, 사진상으로 판별되는 경우로 한지처럼 벽에 발라져 있었는데 현대적인 무늬나 질감이 느껴지는 사례였다.

③ 천장이 변형으로 계승된 사례

전통주택의 천장이 변형되어 나타난 예는 99사례였고 연등천장과 종이반자가 공동으로 가장 많았다. 〈표 10〉을 보면 계승되고 있는 천장은 우물천장, 연등천장, 평반자, 종이반자, 장반자이었고 샷갓천장은 없었다. 우물천장은 9사례(9%)로 공동공간에서 많이 계승되고 있었으며 그 변형의 예는 〈표 11〉과 같다. 연등천장은 모두 34사례(34.5%)로 공동공간에서 월등하게 많이 계승되고 있었으며 그 변형의 예는 〈표 12〉와 같다(사진3).

〈표 10〉 부분 변형 도입 방법에서 연도별로 본 천장의 공간별 사례수

종류	공간별	93	94	95	96	97	계(%)
우물천장	개인공간	1			2		3
	공동공간	2	1	1			4
	연결공간					2	2
연등천장	개인공간			1	1	3	5
	공동공간	3	6	2	5	10	26
	작업공간				1	1	2
	연결공간					1	1
평반자	개인공간			1	2	2	5
	공동공간		2	4	4	2	12
	연결공간					1	1
종이반자	개인공간	3	9	6	5	5	28
	공동공간	1	1		1	2	5
	연결공간					1	1
장반자	개인공간				2		2
	공동공간	1		1			2
총계(%)		11(11.1)	19(19.2)	16(16.2)	23(23.2)	30(30.3)	99(100)

〈표 11〉 우물 천장의 변형에 따른 공간별 사례수

변형종류 공간별	우물틀 변형		우물틀면 변형		계
	틀의 깊이가 깊은 형	틀의 형태가 井자가 아닌형	틀안면이 다른 재질이나 색인 형	틀면에 장식이 있는 형	
개인공간			3(33.5)		3
공동공간		3(33.5)		1(11)	4
연결공간	2(22)				2
총계(%)	2(22)	3(33.5)	3(33.5)	1(11)	9(100)

〈표 12〉 연등천장의 변형에 따른 공간별 사례수

연등천장의 모습 공간별	보와 서까래가 같이 있는 천장			서까래만 있는 천장		계
	다듬음		다듬지 않음	다듬음		
	평천장	경사천장	평천장	평천장	경사천장	
개인공간	1	3	1	1	1	7
공동공간	2	6	1	5	6	20
작업공간				4	1	5
연결공간					1	1
총계(%)	3(9)	9(27)	2(6)	10(31)	9(27)	33(100)



사진 3. 부분 변형 도입 방법으로 계승된 연등천장
(파라다이스호텔 서귀포의 한실, 호텔&레스토랑,
94년 2월호)

평반자는 18사례(18%)로 공동공간에 가장 많았고, 그 변형은 모두 경사진 천장에 현대적으로 매끈하게 다듬어진 사례였다. 종이반자는 34사례(34.5%)로 개인공간에 월등히 많았는데 한지가 아닌 일반벽지로 발라져 있는 경우가 주로였다. 장반자는 4사례(4%)로 변형의 예는 개인공간과 작업공간에서 같은수로 조사되었다.

④ 창호가 변형으로 계승된 사례

전통주택의 창호는 81사례가 계승되어 있었고 완자창호의 변형이 가장 많았다. 〈표 13〉을 보면 띠살창호, 완자창호, 아자창호, 정자창호, 용자창호, 빗살창호, 귀갑창호, 분합문, 복합문이 계승되었고 판장문, 불발기문, 원문은 없었다. 그 중 가장 많은 사

례는 완자창호(49%)이었으며 개인공간에서 가장 많았고(71.6%) 이 역시 97년도에 사례수가 많았다(25.9%).

띠살창호는 16사례(20%)로 개인공간에서 가장 많았고, 그 변형의 예는 〈표 14〉와 같으며 그 중 투명유리에 전통 그대로의 띠살이 끼워진 예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띠살 창호는 전체적으로 그 변형의 사례(16)가 부분 원형 도입 방법(28)의 사례보다 적었다.

완자창호는 40사례(49%)로 개인공간이 많았고, 그 변형의 예는 〈표 15〉와 같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창호지에 변형된 완자살의 원형이 끼워진 형태였다. 그러나 완자창호의 변형(40사례)은 부분 원형 도입 방법(4사례)보다 훨씬 많아서 띠살 창호와와는 달리 변형이 일어나는 창호였다(사진4).

용자창호는 11사례(14%)로 공동공간이 가장 많았고 그 변형의 예는 〈표 16〉과 같다. 용자창호의 변형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창살의 형태변형이 일어난 사례(18%), 창살의 형태는 원형인데 투명유리에 창살이 끼워진 사례(73%), 백색유리에 창살이 끼워진 사례(9%)로 그 중 투명유리에 창살이 끼워진 사례가 가장 많았다(73%).

빗살창호는 7사례(9%)로 공동공간이 많았고 그 외 창호는 사례수가 적었는데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창호의 변형 또한 원형과 같이 몇몇 종류들만 집중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3〉 부분 변형 도입 방법에서 연도별로 본 창호의 공간별 사례수

종류	공간별	93	94	95	96	97	계(%)
띠살창호	개인공간	3	2	2	3	2	12
	공동공간				2		2
	작업공간	1				1	2
완자창호	개인공간	8	8	7	4	7	34
	공동공간		1		3	1	5
	연결공간					1	1
아자창호	공동공간				1		1(1)
정자창호	개인공간	2					2(2.5)
용자창호	개인공간	1		1		2	4
	공동공간			1	2	2	5
	작업공간					2	2
빗살창호	개인공간			1		1	2
	공동공간		2		1		3
	연결공간					2	2
귀갑창호	개인공간	1		1			2(2.5)
분합문	개인공간			1			1(1)
복합문	개인공간		1				1(1)
총계(%)		16(19.75)	14(17.3)	14(17.3)	16(19.75)	21(25.9)	81(100)

〈표 14〉 띠살창호의 변형에 따른 공간별 사례수

변형종류 공간별	띠살의 형태변형		창호지의 변형 (투명유리 +원형띠살)	창살과 창호지 변형(유리+엣칭 무늬띠살)	계
	창호지+변형된 띠살	유리+변형된 띠살			
개인공간	1	4	5	2	12
공동공간			1		1
작업공간		1	1	1	3
총계(%)	1(6)	5(31)	7(44)	3(19)	16(100)

〈표 15〉 완자창호의 변형에 따른 공간별 사례수

변형종류 공간별	창살이 형태변형			창호지의 변형 (투명유리 +원형완자살)	창살과 창호지의 변형(투명유리 +엷칭무늬 완자살)	계
	창호지+변형된 완자살	투명유리+변형된 완자살	백색유리+변형된 완자살			
개인공간	22	5	1	5	2	35
공동공간	2	1		1		4
연결공간		1				1
총계(%)	24(60)	7(17.5)	1(2.5)	6(15)	2(5)	4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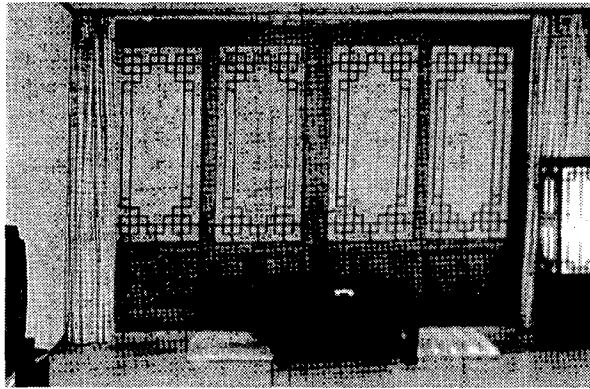


사진 4. 부분 변형 도입 방법으로 계승된 완자창호
(창살변형, 호텔리베라 한실, 조명과 인테리어, 95년 12월호, p.61)

〈표 16〉 용자창호의 변형에 따른 공간별 사례수

변형종류 공간별	창살의 형태변형	창호지의 변형		계
	창호지+변형된 용자살	투명유리+변형된 용자살	백색유리+변형된 용자살	
개인공간	2	1		3
공동공간		6	1	7
작업공간		1		1
총계(%)	2(8)	8(73)	1(9)	11(100)

IV. 결론 및 제언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를 계승한 현대의 주거공간을 최근의 월간잡지(1993.1~1997.12)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① 계승방법은 전체 원형 도입 방법, 부분 원형 도입 방법, 부분 변형 도입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전체 원형 도입 방법으로 구성된 공간은 4.4%에 불과했다. 그러나 부분 원형 도입 방법이나 부분 변형 도입 방법으로 구성된 공간은 그 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전통주택의 실내구성요소인 4요소(바닥, 벽, 천장, 창호) 전체를 계승하는 것보다 주거공간 나름대로의 성격에 맞게 부분적으로 원형을 계승하거나 변형하기를 더 선호함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두가지의 방법중에서는 부분 원형 도입 방법이 더 많았는데 그것은 현대의 공간에서 전통을 계승한다고 할 때, 부분적이거나 변형보다는 원형으로 계승하기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잡지에 실린 사례수만으로 단순히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계승공간의 수는 93년도에 많다가 94, 95년에 감소하고 다시 96년도부터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잡지에 실린 수는 임의적이므로 이를 전체적 경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③ 조사대상 공간의 각 실별 계승의 수를 살펴본 결과 공동공간 보다는 개인공간에서의 계승이 많았다. 이는 아직도 전통을 계승한 공간이 개인실에 편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족이 모이거나 손님의 접대가 이루어지는 공동공간에서도 이에 대한 도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원형 도입에서 가장 많이 계승되고 있는 요소는 장판지, 종이벽, 연등천장, 락살창호였고, 변형 도입에서는 장마루, 종이벽, 연등천장, 종이반자, 완자창호이었으며 그 외의 요소들은 사례수가 비교적 적었다. 이로서 현대인들은 전체 전통 요소들 중에 거의 몇몇 요소들만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통 계승 공간에서 선호되지 않는 요소들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⑤ 본 연구에서는 추상화 방법이나 전체 변형 방법의 사례가 거의 없었고, 내용적 계승 방법은 14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건축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통계승공간에서 추상화 방법이나 내용적 계승방법이 많이 시도되고 개발되어 진다면 그 원형이나 변형이 바로 판별되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우리의 멋이 느껴지는 보다 현대화한 우리 문화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잡지에 실린 사진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각 공간을 방문하여 원형이나 변형여부를 구체적으로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므로써 전통계승의 과정을 보다 면밀히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숙(1996). 한국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 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웅(1984). 한국 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안을 배경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덕수(1993). 음양의 기호학적 구조체제로 본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89). 전통주거공간의 시지각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길(1980). 한국 건축의 전통계승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식(1992). 한국의 민가. 한길사.
- 박영목(1995). 전통 풍수사상과 주거입지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오혜경 공저(1993). 인테리어 디자인. 다섯수레.
- 박영순외 공저(1998).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 손두호(1980). 한국전통주거에서의 풍수사상과 그 건축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하(1995). 노년층 집합주거 환경의 지원성 강화

- 를 위한 디자인 방법과 그 과정에 관한 연구: S노인 하우스의 공용공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영훈(1983).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 염근호(1990). 우리나라 전통 정주공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인식(1977). 한국주거건축의 전통과 계승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도희(1980). 조선조 창살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1996). 컨텍츄얼리즘적 접근방법에 의한 한국적 공간조형의 실험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준(1989). 한국건축 전통성의 현대적인 계승과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교(1980). 전통 주거 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엽(1995). 한국 실내 건축에서 전통성 고찰과 수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봉식(1992). 한국현대건축에서 전통성 표현의 수용과 계승에 관한 연구: 60년대 이후 전통성 논의 및 전통성 표현 건축물의 경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석재(1987). 건축의 기호론적 해석-조선시대 상류주택에의 적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덕훈(1986).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축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수(1975). 한국의 온돌과 주택평면도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남철(1974).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남철(1996). 한국 주택 건축. 일지사.
- 주남철(1997). 한국 건축 의장. 일지사.
- 천병옥(1957). 이조시대 주택의 장식적 의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진경(1986). 전통주택의 실내 마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